**마0517 Note**

**◆ 이정표: 구약의 법과 그리스도**

◇ 법의 종류

1.양심의 법

렘3133.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혈약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 날들 이후에는 내가 내 법(토라:법칙,법령,특히 십계명,오경,법)을 그들의 내부에 놓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들 안에 그것을 쓸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느니라.

Ω롬0214.{이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법 안에 있는 것들을 천성[퓌씨스: (반복이나 확장에 의한) 성장,자연적 산출,종(種),종류(種類),타고난 성향,성질,본래의 용도,본성,인류]으로 행하면,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자신)이 자신들에게 법이기 때문이니라}

롬0215.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면서(쉼마르튀레오:같이 간증하다,일치하는 증거를 확인하다,증거하다,증인이 되다), 또 그들의 생각(로기스모스: 계산,논의,자만,상상,생각)들이 잠시동안[메탁쉬:(장소 또는 사람의) 사이,관여하는,인접한,사이에,동안에,다음에] 서로를 고소하거나 변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씌여져 있는 법의 수고(에르곤: 노역,행위, 수고,일)를 그것이 보여주느니라}

2.구약의 법(모세의 법)

3.그리스도의 법

◇구약의 법의 핵심

Ω마2237.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네 마음(카르디아:마음,사고,마음의 감각,중심부)을 다하여, 네 혼(생명, 프쉬케:호흡,영,목숨,마음,영혼,생명, 유사어:프뉴마,조에)을 다하여, 네 정신(생각,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마음의 기능,작용, 상상, 마음,이햬,의향)을 다하여 사랑할지니라.

마2238. 이것이 첫째의 위대한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이니라.

마2239.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마2240. 이들 두 계명들에 모든 법과 대언자(代言者)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Ω롬1308.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만족시켰음(충족시켰음)이라.

갈0514. 이는 모든 법은 한 말씀 안에서,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만족(충족)됨이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 구약의 법은 그리스도(믿음)께서 오실 때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1113. 이는 모든 대언자(代言者)[프로페테스:영감을 말하는 자,시인/히브리어 나비(영감된 사람.영감에 의해 말하거나 노래하는 자)에 상응]들과 법[노모스:네모(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에서 유래,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법,법규,원리]은 요한의 때까지 대언하였음이라[프로페튜오:영감으로 말하다/히브리어 '나바(영감에 의해 말하거나 노래하다,성령의 감동에 의해 말하다,흘러나오다,하나님으로부터 듣거나 본 것을 말하다)'에 상응].

Ω갈0319. 그렇다면, 법은 무엇에 쓸모가 있느냐? 그것은 약속이 주어졌던 그 씨가 올 때까지 범법들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라, 그것은 중보자(메시테스:중개인,대리사절,화해자,조정자,중재자,중보)의 손(케이르:손,힘,수단,도구) 안에서[엔:(장소,시간,상태에서 지정된)'위치'를 나타냄, 수단,정지,~안에,~에,위에,~에서,가운데,~중에,~동안,~에 관한한] 사자[앙겔로스:앙겔로(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 사자, 파송된 자,특히 천사,목사]들에 의해 정돈(제정)되었느니라(디아탓쏘: 철저하게 정돈하다,제정하다,명령하다,지정하다,주다,명령을 정하다,정하다).

Ω갈0323.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나중에 계시되는 믿음에게까지는[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가두어져(슁클레이오: 같이 닫다,포함하다,공동추체로 포용하다,결론짓다), 우리가 법 아래에서 지켜졌느니라(프루레오:척후병으로 나서다,수비대로 지키다,보초를 서다,보호하다)

갈0324. 그러므로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우리의 교사(파이다고고스:소년 보호자,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노예,가정교사,교사)이었느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해 적법하다고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대체(代替) : 구약의 법과 그리스도(믿음)

1.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새로운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Ω마0517. 내가 법[노모스:네모(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에서 유래,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법,법규,원리]이나 대언자(代言者)들을 무너뜨리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무너뜨리려고가 아니고 성취하려고(플레로오:가득 채우다) 왔느니라.

마0518. 이는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이니,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작은 하나나 한 자획이, 모든 것이 성취될(가득 채워질) 때까지 법[노모스:네모(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에서 유래,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법,법규,원리]으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Ω롬03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법을 공허하게 만드느냐? 당치 않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법을 공고히 굳히느니라.

2. 예수님은 구약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충족이 됩니다

롬1004. 이는 그리스도는 믿는 낱낱의 자에게 '법적 깨끗함'에 대해서는, 법(法)의 종점(텔로스: 한계로서의 도달점,행위나 상태의 결국,종착,결과,목적,완성)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존스토트)

3. 그뿐만 아니라(구약의 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구약의 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어려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Ω요1334. 새로운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

Ω요15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1요0323.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계명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위에서 믿어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던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

◇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

갈0325.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교사(구약의 법) 아래에 있지 않느니라.

1. 이제 우리는 구약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롬0614. 이는 죄가 너희에게 주권(主權)을 갖지[퀴리유오: 통치하다,주(主)가 되다,지배하다] 못함이니, 이는 너희가 법[노모스:네모(분배하다, 특히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에서 유래, (관습의 개념으로서의) 법,법규,원리]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 아래에 있음이라.

롬080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음이라(엘류데로오:자유롭게 하다,책임에서 면제되다,해방하다).

2. 이제 우리는 구약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의 안에, 자유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의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약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Ω롬080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어떤 유죄판결(카타크리마:불리한 판결,정죄)도 없으니, 그들은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느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Ω약0212. 자유(엘류데리아: 자유)의 법에 의해 판정을 받는 자들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원칙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법과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호의가 먼저 옵니다.

롬0915.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심이니, 내가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엘레에오: 측은히,불쌍히,긍휼히 여기다,동정하다/ 히브리어 하난:구부리다,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은혜를 베풀다,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하난'의 의미로 15,16,18절 해석함) 자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것이며, 내가 그에게 '함께 걷기'를 가지고 있는(오이크테이로: 동정을 베풀다,불쌍히 여기다) 자에게 내가 '함께 걷기'를 베풀 것이니라,

약0213. 이는 아무런 긍휼(엘레오스:긍휼,자비,인애)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는 무자비한(아닐레오:냉혹한,무자비한,무정한) 심판[크리씨스:결정,결심,재판소,하나님의 법,공의,정죄,단죄,비난,재판/히브리어'미쉬파트(결정,판결,심판,선고,정의,법)'에 상응]을 받음이라, 그리고 긍휼(엘레오스)이 심판에 대해 뽐내며 기뻐하느니라(카타카우카오마이:매우 기뻐하다,뽐내다).

◇ 우리가 구약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의 안에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를 통째로 들어올리실 때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과거에 붙어있었던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를 들어올리실 때에, 그 때에 붙어있는 사람만 들려올려갑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갈0327. 이는 그리스도 속으로[에이스: (전치사로서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만 복합어에서 사용됨)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에로','~앞으로', 목적지나 결과등의 방향,~대하여,~중에,~로서,~에,전에,까지,~관하여]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이라.

요1335. 만약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 너희가 내 제자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아느니라.

요14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1421. 내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그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는 내 아버지에게서 사랑 받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또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엠파니조:사람이 나타나다,말로서 발표하다,선언하다,알리다,의견을 공표하다,보이다,발표하다) 것이니라.

요1504.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할 수 없느니라.

Ω요1505.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 머무르며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와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바로 그와 같이, 만약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느니라.

1요0205.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누구든지,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느니라, 그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1요0324.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는 그분 안에 거하며, 또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고

1. 할례나, 의식(儀式)이나,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필요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Ω갈0502.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곧,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오펠레오: 유용하다,유익하게 하다,유익하다) 못하느니라,

갈0504.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곧, 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너희 중의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효능이 없게 되었느니라(카타르게오:완전히 쓸모없게 하다,폐지하다,쉬다,방해하다,파괴하다,멀리하다,소용없게 되다,소멸하다,헛되다), 너희가 은혜(호의)로부터 떨어졌느니라.

갈0410. 너희가 날들(헤메라:낮,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시간대,시간,세대,한낮)과 달들(멘:월,한 달)과 때들[카이로스:기회,정해진,적당한 때,항상,(평안한,적당한) 시기나 때,동안,절기]과 해(年)들(에니아우토스: 해)을 지키느니라.

Ω골0216. 그러므로, 아무도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성일(聖日)(헤오르테:명절,잔치,축제일)에 관해서나, 신월제(新月祭, 누메니아:초생달,축제)에 관해서나, 안식일들에 관한 것으로, 너희를 판정하게 허용치 말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의식(儀式)을 지켰습니다.

행1603. 바울이 자기와 함께 그를 나아가게 하려고 (엑세르코마이:발행하다,나오다,나가다,떠나다,피하다,외국으로 가다,가버리다,널리 퍼져 나가다) 하니라, 이에 그 지역들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라,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임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음이라.

Ω행2126.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화(淨化)시키고, 봉헌물(프로스포라:봉헌,희생제물,헌물)이 그들의 각 사람을 위해 바쳐져야 하는 날까지의 정화(淨化)의 날들의 성취(완성)를 알리려고(디앙겔로:철저하게 예고하다,선언하다,설교하다,나타내다),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3. 바울은 왜 할례를 행하고, 의식(儀式)을 행했는가

그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0205. 우리가 예속됨으로(복종함으로) 그들에게 양보했었다, 그렇기는커녕, 한 시간도 양보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 너희에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의 상대가 유대 당국자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바울이 타협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얻기 위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행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바울은 행했습니다.

롬1502. 우리 낱낱의 자는 자기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 곧, 세우기 위해(충전하기 위해) 그를 기쁘게 하자.

Ω고전0813. 그러므로 만일 고기가 내 형제로 걸려 넘어지게(스칸달리조:걸려 넘어지다,함정에 들다,죄에 빠지다,배반당하다,불쾌하게 되다,죄를 범하게 되다) 만들면, 이 세상이 서있는 동안에, 내가 내 형제로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어떤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니라,

고전0922.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것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연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들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간을 구하려 함이라,

4.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들어봅시다.

Ω행21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로부터, 피로부터, 교살된 것들로부터 그리고 행음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말 것을 편지했으며 또 결론내렸느니라.